

프랑스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는 프랑스의 정당정치 역사

From 1981 to Now

배도희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014.06.16.

프랑스 문화 산책

목차

01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방식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방식

- 1-1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방식 파악
- 1-2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방식과 비교

02 프랑스 역대 대통령

- 2-1 프랑수아 미테랑 (1981-1995)
- 2-2 자크 시라크 (1995-2007)
- 2-3 니콜라 사르코지 (2007-2012)
- 2-4 프랑수아 올랑드 (2012-현재)

03 프랑스의 정당정치

- 3-1 프랑수아 미테랑 시기
- 3-2 자크 시라크 시기
- 3-3 니콜라 사르코지 시기
- 3-4 프랑수아 올랑드 시기

04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

- 4-1 대한민국 정당정치 비판
 - 4-2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 제시
-

맺는말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방식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방식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방식 파악

1. 방식

1)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500명의 지지서명이 필요하다.

2) 투표

① 과반수 득표 -> 당선

②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 1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2명 2차 투표 = 최종결선투표(2주일 뒤)

3) 임기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

-> 자크 시라크는 5년 임기를 수행한 첫 대통령이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방식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방식 비교

1-2

< 공통점 >

- *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 차이점 - 프랑스는, >

- * 투표가 두 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나누기 때문이다.
- * 재임이 가능하다.

< 차이점 - 대한민국은, >

- * 한 번의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된다.
- * 재임이 불가능 하다

< 그 밖의 대통령 선거 양상에는 >

-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프랑스 정치의 이데올로기의 다양성과 좌우의 공존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해야 할 정치적 특성이다.
- 또한 대통령 후보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념 검증에 대해 프랑스는 이를 천부인권으로 남겨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역대 대통령

프랑스 역대 대통령 계보

프랑수아 미테랑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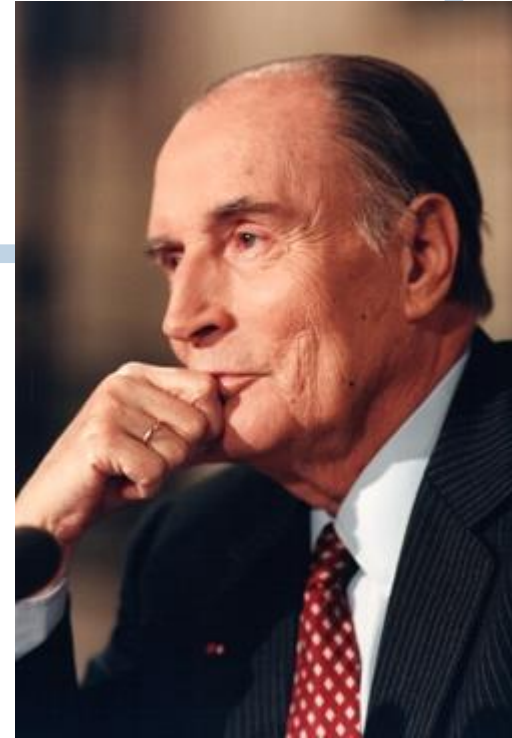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수아 미테랑(1981-1995)

François Maurice Adrien Marie Mitterr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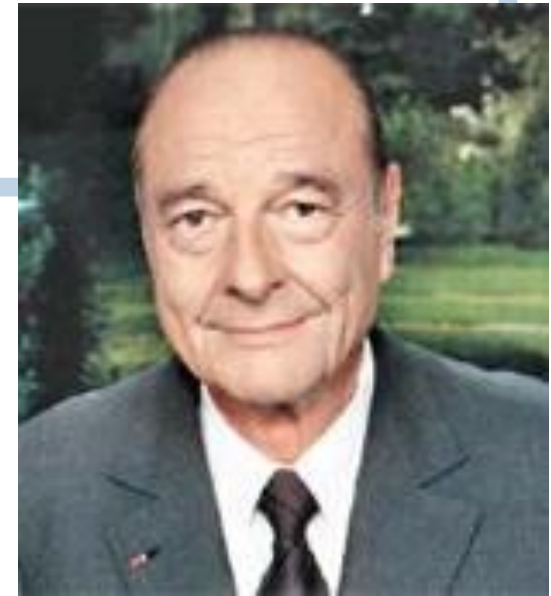
미테랑, 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로 설명되는 사람이다. 공산당이나 급진좌파는 그를 개량주의라 비판했고, 우파세력은 집권초기의 대규모 국유화 등 사회주의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주로 기간산업의 대대적인 국유화가 이것인데, 이에 대해 미테랑은 자본주의와의 타협을 시도, 좌파지식인들과 급진세력은 비판을 더하고 우파정치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존경과 애도를 표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자 미테랑에게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임기 동안 미테랑은 이전 보수 정권의 통제 경제 정책 기조를 지키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담은 국가 의제 (110 공약)를 설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려 한 유럽 최후의 지도자였다.



자크 시라크(1995-2007)

Jacques René Chirac

자크 시라크는 미테랑 다음으로 오래 프랑스를 통치한 대통령이다. 또한 그는 미테랑에 비하면 일관성 있는 프랑스의 대통령이라고 평가 받는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남태평양 지역 핵개발 실험과 국내 사회 보장 제도 추진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신드골주의자로서 국제조직에서의 프랑스의 참여 문제를 위해 유럽연합 정책에서 프랑스에 강한 발언을 주기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정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가 단축한 임기 동안 재임하여 총 12년을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다. 자크 시라크를 논할 때 동거정부를 빼놓을 수 없는데, 리오넬 조스팽과의 동거정부는 그가 선거에서 리오넬 조스팽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리오넬 조스팽과 사회주의 정당들은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니콜라 사르코지(2007-2012) Nicolas Sarkozy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2차 선거에서 그는 53.06%를 획득하면서 프랑스의 26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대선 결과 발표 이후 좌파의 반대 집회가 프랑스 15개의 대도시에서 일어났고, 그 중 몇몇 집회에서는 폭력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그는 우파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정치적 행보는 마치 그가 부자들의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는 새로 도입한 조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세금환급과 상속세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광고를 폐지하고, 민영방송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였다.



프랑수아 올랑드(2012-현재) François Gérard Georges Nicolas Hollande



그의 당선은 뭔가 달랐다. 사르코지와 격차를 10% 이상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올랑드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공약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모든 금융 거래에 과세하며, 교육 분야에서 6만 명을 새로 채용하고 젊은이들에게 만 개의 새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는 등, 미테랑의 110 공약이 오버랩되는 <프랑스를 위한 60가지 우선 정책>을 발표했던 것이다.

프랑스의 정당정치

프랑수아 미테랑(1981-1995) 시기

3-1

>>> 사회당 정권

Parti Socialiste

사회당(Parti Socialiste)은 프랑스의 가장 큰 좌파정당으로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을 잡았다. 미테랑이 취임하자마자 하원인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최초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원내 과반수를 장악하게 되고, 이를 “분홍빛 파도”라고 불렀다. 이는 우익정당은 물론이고 프랑스 공산당에게도 타격을 미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6년의 의회 선거에서 사회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잃게 되어 미테랑은 자크 시라크의 보수 정권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프랑스를 만들겠다는 미테랑이 재선되고, 그가 총리에는 사회주의 정치인을, 내각에는 중도 우파적 성향의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그의 행보는 1988년 6월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다시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미테랑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이 재정과 관련된 몇 차례의 스캔들과 “미테랑주의”를 둘러싼 내분으로 인한 타격은 정당 운영에 있어 문제시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자크 시라크(1995-2007) 시기

3-2

>>> 공화국연합 그리고 대중운동연합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공화국연합(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는 프랑스 우익 정당으로 자크 시라크에 의해 창당되었다. 미테랑의 연이은 당선으로 14년 동안 집권했던 사회당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이전에 비해 싸늘했던 것이 자크 시라크의 당선과 공화국연합의 집권을 가능케 하였다. 1955년 당시의 대선은 발라뒤르와 시라크라는 두 '신 드 골 주의자'의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시라크는 빈부격차의 축소를 위해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2년 9월 21일, 공화국연합은 후일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이 되는 '여권(與權) 강화를 위한 연대'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대중운동연합 역시 자크 시라크의 지지 세력이 모여 창당하였다. 지방선거의 현 단위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지만, 니콜라 사르코지의 대선 승리로 그 다음 6월 17일 총선에서는 원내 제1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니콜라 사르코지(2007-2012) 시기

3-3

>>> 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2008년 3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대중운동연합은 다시 한 번 패배한다. 시장 선거에서 툴루즈나 스트라스부르 등 다수의 선거구와 현(縣) 등에서 좌파들에게 내주었던 것이다. 이후, 프랑수아 피용 내각 아래서 사회연대부의 장관이었던 자비에 베트트랑이 입각을 위해 당수직을 사임한 패트릭 드브지앙을 계승하여 2008년 말 임시 당수에 오른다.

2009년에 실시된 유럽 의회 총선에서 대중운동연합은 "여권의 강화" 시절처럼, 이제는 군소정당이 된 급진당과 중도좌파당과 함께 선거 연합을 구성한다. 이들은 27.9%를 득표하고 29명의 유럽 의회 의원을 내는 등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 이 결과는 2004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대중운동연합의 모습을 실감하게 했다.

프랑스아 올랑드(2012-현재) 시기

3-4

>>> 사회당 정권

Parti Socialiste

다시 사회당이 재집권한다. 그 배경에는 서민 위주의 경제공약이 있었다. 60가지 우선정책의 일부였던 서민 위주의 경제공약을 실제로 반영,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부양을 실시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올랑드의 목표성장률(2.0~2.6%)이 잠재성장률(1.5%~1.7%)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올랑드의 고용확대 정책이 일시적 고용 확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 전용 공공투자은행에 관련된 정책들이 현 정책을 보완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목표한 것, 그리고 프랑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우려를 대변한 것인지, 현지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당수로 있는 국민전선이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린 르펜이 두각을 보였던 과거의 이력과 동시에 극우파의 모토, 반유럽연합, 반유로화 등은 극우파의 득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 모색

프랑스의 대통령, 그리고 집권 정당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 프랑스 정치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인 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당을 정의하고 있다(<정당법> 제2조).

그 시작은 먼저 다양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진보, 보수를 나누기 전에 이념적 관점에서는 모두가 우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시선에서도 보았을 때 좌파 정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적도 없으며, 당연히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도 못한 정치적 역사는 다원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일원화 되어있는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며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 모색

두 번째는 이념검증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에 대한 이념검증이 어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안보적 불안정성에 기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념 검증을 비롯한 개인의 사상은 자유로운 인권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퍼져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념 검증 앞에 다른 성과들이 평가 절하 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특히 정당에 대한 잣대가 그러하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수하겠다’라고 말한 볼테르처럼 정당들의 존립에 있어서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특정 정당의 이념을 평가하고 결론 짓는 행동은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 모색

тол레랑스의 관념이 필요하다. 이 때, 피할 수 없이 언짢음을 나타내는 것들, 폭력, 굶주림, 빈곤, 무지에 대해서만 тол레랑스 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지역적 분화 또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보다 어려운 사람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이타적인 투표를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차라리 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와 상속인들은 ‘탈규제’와 ‘감세’ 정책을 내세운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이러한 해결책이 정치인들보다는 국민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이 곧 정치인들의 변화를 만들고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민주주의의 무기, тол레랑스>, 필리프 사시에 지음, 이상복스

출처 <망가뜨린 것, 모른척 한 것, 바꿔야 할 것>, 강인규지음, 오마이북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 모색

또한 누구라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민주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인이 할 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할 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인’이라는 이름에 더 많은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자면,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없으나 프랑스의 정치에는 있는 것이 다양성 그리고 동거정부의 형태일 것이다. 대한민국에 동거정부의 형태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크 시라크의 동거정부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의 탄생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에 새 바람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는, 카리스마적 리더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살아온 배경에서 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 씩 해결하면서 나타날 더 나은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기대해본다.

문화는 사회를 서서히 바꾸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이 제게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1학기 동안 프랑스 문화 산책을 들으며 제 관심사에 대한 교양을 쌓는 시간이었던 것과 동시에 제 전공과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문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느라 1학기를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말을 찾았습니다. ‘문화는 사회를 서서히 바꾸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 문화를 모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닌 프랑스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제 정치 공부에 있어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정치 - moi 와 non-moi의 관계를 상상해 본다면 그 깊이는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주의,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으로, 그리고 고딕의 건축물로서 우리가 들여다 본 것의 결론은 소통, 그리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청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경청과 배려는 상대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동시에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일면만 고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혹은 못하는) 행위는 더욱 더 지양해야 겠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시간이 많이 주어졌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고는 합니다. 21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미 질문하지 않는 교육, 막힌 교육을 받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으므로, 아직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문화산책의 교육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얻고, 작게나마 배워가는 것이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